

# 성실, 근면,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김재창

영림축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양2리 339-2

'97년, 지난 1년은 우리 낙농육우인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힘겨운 한 해임이 분명할 것이다.

유난히도 올 한해, 연이은 대기업들의 부도와 각종 경제문제들의 돌출 등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경제의 허약한 체질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또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맞물려 작년에 이어 소값 폭락이 양축 농가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러한 소값 폭락의 원인은 국내상황 뿐만 아니라 국외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

'96년 전세계를 경악케 했던 영국의 광우병 파동과 일본에서의 O-157 병원성 대장균 등 국외적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는 국내경기 부진과 병든 소 도살 등으로 인한 쇠고기 소비감소와 7월부터 시작된 소부산물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계속되어온 소값 하락으로 마침내 올해 1월 25일 정부가

수매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값 하락이 앞에서 언급한 이유만으로 야기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의 소값 하락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예견된 사실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축산농가들의 전업화, 대형화,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축산시설 자금을 무차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런 정부의 무선별적인 축산시설 자금의 지원은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축사의 수적 팽창과 대형화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축사의 증가와 대형화는 곧 송아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는 송아지 값의 폭등을 유발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정부측에서는 입식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 아닌 경고로만 일관 했을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바로 여기서 정부의 탁상행정과 축산농가의 비합리적 경영을 짐고 넘어가야할 것이다.

먼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오류는 축산시설

자금지원 이전에 한번 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송아지 입식자금을 지원하여 외국산 소를 대량 입식시켜 소값 폭락을 유도하였던 정부가 이번에는 축산시설 자금지원으로 또다시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축산시설 자금지원 자체는 양축농가들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정책이지만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는 너무나도 무계획적이었다는 감이 든다.

무엇보다도 축산시설 자금지원을 행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풍부한 경영능력과 사양기술능력을 갖춘 양축농가들을 선발하여 시범적 실시를 통해서 얻은 결과로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해본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정부 당국의 실수는 지금에 와서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축산시설 자금지원이 시작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소사육두수가 과잉생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송아지 값의 폭등과 품귀현상은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상황을 정부 당국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양축농가들의 잘못이 작지않은 않다.

즉 정부의 자금지원만 있다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무시한채 일단은 받고보자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과 낙후된 사양기술로 일관해온 우리자신의 잘못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세로는 앞으로 겪게될 쇠고기와 생우 수입 전면 개방이라는 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 인듯하다.

이제는 정부와 우리 축산농가들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정부는 축산농가의 전업화, 대형화, 현대화라는 공허한 구호만을 외칠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인 축산형태를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축산형태는 너무나도 미국적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체질과는 동떨어진 형태임이 분명했다.

따라서 미국뿐만이 아닌 차라리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유럽형 축산형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 일인것 같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축산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 판단과 무엇보다도 축산인의 여론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 해야 할것이다.

우리 축산농가도 사육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 이전에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어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고급육 생산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사양기술의 개발과 습득을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한다.

정부 당국의 지원만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될 때이다.

지금의 소값 하락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힘들다나 여러 통계자료를 종합해 볼때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올해 수입된 수입 쇠고기 잔여분과 내년에 수입될 쇠고기, 그리고 수매를 통해서 비축된 한우 등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의 소값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올해와 같은 경기부진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엘리뇨현상으로 인한 사료곡물 생산감소와 달러화 폭등으로 사료값의 인상 등과 같은 악재가 작용한다면 올해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인 모두가 열망하던 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전면적 폐지 적용과 낙농 진흥법 개정 등과 같은 성과도 있어서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한육우값의 폭락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질과 하겠다는 근성과 노력 그리고 외부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의 능력을 가진자만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부디 축산인 모두에게 밝아오는 새해는 풍요롭고 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필자연락처 : (0418) 547-0039〉